



## “보기에 중았더라...”

### 사역 지도층을 위한 의사 결정의 모델

©아셰르 인트레이터, 2007년 12월 26일

소대 공동체 내의 예슈아 제자들은 메시아의 몸을 이루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입장의 문제를 놓고 위기를 맞습니다. 갈등의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진보했습니다. 갈등이 해결되는 방식을 보면 사역의 지도층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옳은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수반됩니다.

1. 모임을 통한 논의- 사도행전 15:7 - "토론을 많이 한 뒤에" 논의는 길었고, 때로 열띤 분위기로 치달기도 했습니다. 주요 지도자들은 모두 자기 생각을 표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편치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면,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열띤 토론을 두려워 애선 안 됩니다.
2. 지도자의 결정- 사도행전 15:19 - 사도 야고보는, 모임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판단으로는..." 그는 유대 종교 재판장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최고 판사 '포베크'의 역할을 감당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열린 논의를 알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지도자가 있어야 함을 모두가 인정합니다.
3. 성령의 분별- 사도행전 15:28 - "성령과 우리는...아기로 아였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적 임재는 그들 가운데 논의의 온전한 참여자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 분의 뜻과 의지를 받아들인 것이요. 제자들은 기도와 금식으로(행 13:2)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자 했고, 그에 복종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지도층에 논의를 위한 모임이 없이, 최고 권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결정한다고 하면, 모임이 이단이나 권위주의로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뢰도가 없겠지요. 새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좌절할 것입니다. 가지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지도자가 모임의 방향성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해도, 그가 자신보다 아래 있는 이들을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모임의 화합이 깨질 것입니다. 분명한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왕좌왕 아다가 잘못된 길로 갈 것입니다. 어떠한 방향도 분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분열과 반발, 불만, 온란이 따르겠지요. 양적 성장도 없을 것입니다. 권위가 존중되지 못하니, 권위자를 세우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특정한 지도자가 없이 모임을 운영하는 게 더 “영적” 이라든가 “은혜” 로 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말씀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성령님께 대한 굴복이 없다면, 모임은 결국 인본주의와 종교적 정치학에 빠져버립니다. 여기서 “투표” 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위원회가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서로의 마음이 일치될 때까지, 성령님께 복종하며 “기도하고 대화하고, 또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그 분의 뜻” 을 구합니다(마 26:39). 우리 모두 틀렸습니다! 우리는 “제 3자” 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기도한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다.

신약의 리더십 구조가 “왕실(하나의 지도자를 머리로 둔 계급적 권위)” 과 같은지 “영제애(수직적 권세가 없는 동등자들의 모임)” 와 같은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권위는 아날로부터 “내려오고” 예슈아를 통해 위임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직적 권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한편, 모든 이들이 성령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제자매 된 이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 정답은 두 입장의 조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저의 저서 <Covenant Relationship> 212 쪽을 참고하십시오).

권위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쥐고 있느냐, 아니면 권세 아래 있느냐. 우리는 모두 상행과 하행 두 입장 모두에 능해야 합니다. 백부장도 말했지요.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누가복음 7:8).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권세에 복종할 줄도 알고, 내 권세 아래의 사람들을 다룰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권세 아래 있는 입장일 때, 우리는 최대한 “왕실” 의 모델을 따라 지도자를 두려워하며, 그의 권위를 높이고 복종을 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입장일 때는, 최대한 “영제애” 의 모델을 따라 권세 아래 있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영제 자매로 대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정반대를 행하려 합니다. 우리가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언제나 더욱 친근한 접근을 주장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서면 다른 이들이 내 권위에 복종하고 존경을

표아기를 기대합니다. 거의 모두가 이 두 실수 모두를 저지르죠. 우리가 육신의 경양에 맞서 싸우면, 거룩한 균형을 조금 더 이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슈아께서 리더십에 대해 주신 왕금률은 간단합니다-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의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0:27; 23:11). W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든지 종이 되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에 복종해야 할 때나, 권위를 행사하는 때에나 마찬가지입니다.

번역: 고병연